

# 무용이론, 빛을 밝히다

2021.11.13.(Sat.) 오전 9시  
ZOOM 화상회의

## 인사말

나경아 교수님      무용원 이론과 학과장  
서정록 교수님      무용원 이론과 교수  
19학번 정다인      무용원 이론과 예술사 학회장  
20학번 배수현      무용원 이론과 전문사 재학

## 재학생 활동내용 발표

### [예술사]

19학번 원예나  
18학번 권수림

### [전문사]

20학번 김민아

## 졸업생 강연

12학번 한채현      <전공을 살린 취업의 장단점>

## 졸업생 & 재학생 소개

## 선배의 응원

## 진로멘토링

## 이론과 발전을 위한 자유토론

주 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무용이론 동문회

## 프 로 그 램

시 간		내 용
1부	09 : 00 ~ 09 : 10	인사말
	09 : 10 ~ 09 : 25	학생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예술사] 19학번 원예나, 18학번 권수림 / [전문사] 20학번 김민아
	09 : 25 ~ 09 : 40	졸업생 강의 12학번 한채현 < 전공을 살린 취업의 장단점 >
	09 : 40 ~ 10 : 05	재학생 소개
	10 : 05 ~ 10 : 15	졸업생 소개
	10 : 15 ~ 10 : 35	무용원 무용이론 동문회 소개 선배의 응원 이론과 학술지 『무용과 이론』 소개 이론과 홈페이지 소개
	10 : 35 ~ 11 : 05	진로 멘토링
11 : 05 ~ 11 : 10		1부 마무리 및 휴식시간
2부	11 : 10 ~ 11 : 30	이론과 발전을 위한 자유토론

## 인사말

무용이론과 학생 진로 멘토링 행사가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 제 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재학생과 동문들의 만남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동문들의 상호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재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졸업생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재학생들의 능동적 참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과장의 입장에서 이러한 자체적 준비과정과 행사내용을 바라보며, 매우 감동스럽습니다.

“춤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기 창조 과정으로 인간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춤은 인간의 가장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심신의 건강을 선물합니다. 인류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지는 춤에 관한 연구는 인간-사회-문화를 연결하는 풍부한 자원이며, 무용 연구자들은 인류사의 과거-현재-미래를 밝혀 줄 전문가입니다.”

무용이론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무용원 이론과는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 연구와 교육의 새로운 시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위해 교내외 교류를 연결하는 활동 축을 넓히고 있습니다.

첫째, 2019년 학생연구발표회로 시작된 행사가 2020년 이론과 학생학술대회로 발전되었습니다. 한해의 강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발전시키고,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 학생들의 정보교류와 교강사들의 전문적 지도를 받는 시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2020년 1월 전문학술지 <무용과 이론>의 창간입니다. 특히 올해는 영문홈페이지와 국문홈페이지 구축으로 이론과의 지식생산 활동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어 국내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오늘 열리게 된 '학생진로 멘토링 행사와 동문회 활동'입니다. 첫해 멘토링 행사를 계기로 졸업생 동문회가 결성되었으며, 선후배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학생연구 활성화 및 재학생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동문들이 뜻을 모아 학생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익명의 동문이 한국 춤을 연구하는 후배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익명의 또 다른 동문들이 자체적 학과행사에 기여하는 재학생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춤 연구를 위해 학업에 열중하는 재학생들과 사회 곳곳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함께 모여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서로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인 재학생들은 동문들의 뒤를 이어 자랑스러운 무용이론 전공자로서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졸업생, 재학생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인사말

무용 이론은 무용의 빛입니다 .

왜 무용 이론은 춤에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빛일 수 있을까요 ?

이는 무용 이론이 빛과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먼저 무용 이론은 창조 입니다 . 많은 신화는 물론 최신 과학에서도 태초는 빛과 함께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 빛은 바로 창조와 동일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무용 이론은 춤에 대해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해 이제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고 제시합니다 . 또 이러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과 새로운 관점은 춤의 창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그러므로 무용 이론은 빛이 태초에 하였던 역할과 동일합니다 .

무용 이론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 또 빛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와 관련된 구절을 자신들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캠브리지 대학교 (University of Cambridge)는 "여기 , 빛과 성스러운 지식 (*Hinc lucem et pocula sacra*)", 옥스퍼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는 "주는 나의 빛 (*Dominus Illuminatio Mea*)", 예일 대학교 (Yale University)의 "빛과 진리 (*Lux et verita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은 진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 무용 이론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춤과 세상의 여러 면모를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 빛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빛이 아닌 것처럼 무용 이론도 춤의 진리를 보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

또 빛은 아름다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 또 우리가 흔히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을 때 , 흔히 '빛이 난다 '는 표현이 있는 것에서 이는 성경에서만 표현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아름다움 중에 최고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움직임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입니다 . 이는 일상을 뛰어 넘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 이런 의미에서 춤은 곧 빛입니다 . 무용이론은 바로 이런 신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

무용이론과는 춤 연구를 통해 새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 무용이론과는 춤에서 진리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 무용 이론과는 연구를 통해 춤의 아름다움을 들어내야 합니다 . 바로 무용이론과는 춤에서 빛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사람들이 춤을 통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하여야 합니다 . 이미 짐작하겠지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 그렇지만 우리 이전에 새로움을 , 진리를 ,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던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적잖은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 바로 고대 그리스어에 "*parrhesia* " 한국말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리를 말하기 "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parrhesia* "를 실천하고 혹은 실천하고자하여 모였습니다 .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들어내려 할 때 종종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다면 진리를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오늘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

환영합니다 !

## 인사말

안녕하세요. 2021년 무용원 이론과 예술사 학회회장 정다인, 전문사 재학생 배수현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제3회 무용원 이론과 멘토링 프로그램 '무용이론, 빛을 밝히다.'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근 2년 동안 재학생은 활발한 소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록 비대면 일지라도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 '무용이론, 빛을 밝히다.'가 이론과 재학생과 졸업생들, 그리고 교수님과의 만남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과 학생분들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지해주신 나경아 교수님과 서정록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주최하기까지 전반적인 도움을 주신 길혜수 조교님과 무용이론 총 동문회장 박은혜 선생님, 그리고 무용이론과 총 동문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강의를 해주신 한채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용원 무용이론과는 타과에 비해 소수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과 졸업생 선배님들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구성원임에도 실제로 각 영역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재학생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이 재학생들과 선배님들이 연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론과 예술사, 예술전문사를 대표하여**

**무용원 이론과 예술사 학회회장 정다인**

**무용원 이론과 예술전문사 재학 배수현**

